"시민사회와 전통문화 보전하며 세계평화 기여한다"

■ 제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 자승스님, '신개념 호국불교' 제안

"한국불교 이 땅에서의 정신적 지주 역할 역사적 의미 기반으로

서울시와 조계사일대 건지등 역사문화공간 조성 '호국불교상장' 만들 것"

제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일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미의 호국불교를 제안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사에서 통합단결 화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불사로 꼽히는 2조원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의 중심성을 역설하며 "이제 새로운 조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는 이 땅에서 고대국가 창성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다하면서 외부의 침략과 수탈에서 백성의 생명과 종교를 지켜내고 호국불교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스스로는 호국불교 역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제 조국불교는 자자 역사적 의미를 가반으로 하여 민족 국가의 시민 사회 형성과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전통 문화의 조화로움과 지혜로움을 보전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적 의미로 승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호국불교가 이웃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종교를 보호하는 의미있었다 오늘날에는 시민과 사회와 함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세계평화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현재의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조계사 성역화 불사가 새로운 조국불교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1반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년 평균 2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역사문화공간이다. 특히 조계사는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 등 서울을 상징하는 역사와 전통, 근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기도 하다.

종단은 지난 해에 서울시와 MOU를 체결해 건지등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대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이며, 예산은 3600억원에서 35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건축등 45년지 일대 토지면적 20만8372㎡ 규모에 법륜스님이 제창한 지장기념 호국관, 광장전, 10-27역사문화공원과 역사교육관, 전통문화 상품아케이드, 대규모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시민과 함께 하는 조계사 역사문화 공원 조성"을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며 34대 집행부가 앞장 서 종합시업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어연경 기자 sonasin@buddo.com

자성과 쇄신결사 '지속'…교구중심·승려복지 추진

■ 취임사로 본 34대 집행부 주요 초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사에서 34대 집행부가 펼쳐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33대부터 이어온 자성과 쇄신결사의 지속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자성과 쇄신결사를 제한한 배경에 대해 스님은 "오랜 역사와 전통만을 되뇌고 선대 조사들의 공덕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習기관이 지향종장기관이 효율적인 지원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을 중심과제 이며 "각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교구가 중심이 돼 실질적으로 교구 전체의 종무행정을 책임 있게 관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종도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공사(노동소통)를 확대하고, 원만, 출가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 생활 보장 등 복지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어연경 기자 sonasin@buddo.com

'종정예하 법어' (1면에 이어)

서있(입장)에 있게스님이 법문을까에 합백선사 회상(會上)에서 삼년 간 정진에 몰두하였다. 당시 우나 소임을 맡고 있던 부주스님이 법력 선생께 찾아가 말씀드렸다.

"방장 스님, 우리 선방에 장자 큰 산마루에 장자(長者)가 있는데 지금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수이 가게끔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도 벌써 알고 있었네."

"내일 아침 공양 후에 그 수좌를 보낼 터이니 잘 재접해서 주십시오."

뒤날 우나 스님이 수좌를 불러 물었다.

"수좌는 이 선방에 온 지 몇 년이 있었는데, 그건 방장 선사를 친견하였는가?"

"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공양 후에 방장실로 가 불법(佛法)에 관고 받은 큰 도를 물어보게."

입재스님이 우나 스님 지시대로 방장실로 찾아가 불법에 관고 받은 도를 물으니, 방장스님께서 즉시 주장자로 이십 방을 때리셨다. 이십 방(棒)을 맞고 밖은 도둑 이어 나가자, 방장실에 나와 있는 젊은이 보고 우나 스님이 찾아와 물으셨다.

"방장실에 갔다 왔는가?"

"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불법대의(佛法大意)를 여쭈었더니 이십 방을 맞고 선산이 다 망가졌습니다."

우나 스님 말씀이 "이 대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몸을 천신만륙쇄 바라야 되네. 내일 또 방장실을 찾아가 종전과 같이 물게"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니, 다시 용기를 내어 방장실을 찾아가 종전과 같이 불법대의를 여쭈었다. 그러나 방장 스님께서 또 이십 방을 내리셨다.

다시 용을 추스르고 그 다음날 또 신심을 내어 찾아가 여쭈었는데도 역시 이십 방을 내리시더니, 그렇게 삼일 간 육십 방을 맞으니 선산이 망가져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러니 우나 스님이 상서 물으셨다.

"다녀왔는가?"

"다녀왔습니다. 지는 방장 선사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산으로 가야겠습니다."

"가려면 방장 선사께 인사를 드리고 가게. 갈 곳을 지도해 줄 것이네."

입재스님이 며칠 동안 간병삼매로 몸을 추슬린 후에 하직인사를 올리니 방장 스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고인경전(古人經典)를 대우 선사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고인경전(古人經典)에 대우 선사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입재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길림길이 불법대의를 묻는데 어떻게 이십 방을 때렸는고? 라고 이심이 사무쳤다. 수 백리를 걸어 당도하여 예를 올리니 대우 선사께서 물으셨다.

"수좌는 어디서 오는고?"

"법력 선사 회상에서 옵니다."

"법력이 어떤 법문을 하더고?"

"제가 세 번을 불법대의를 묻는데 이십 방씩 쉼없 간 맞았다. 제가 무슨 허물이 있어 육십 방을 때렸나?"

이에 대우 선사께서

"법력이 전신의 힘을 다해 공 가르쳐주기 때문이는 "하하"라고 크게 웃으시니, 입재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깨닫고는 말하기를, "불법의 불법이 몇 것 이나가나?" 하니, "이 오후에게 큰은 놈이 도리 전에는 허물이 이 있는지 묻다니 이 무슨 말인가?" 하시자 입재스님이 대우 선사의 얼굴이를 세 번 쥐어박았다. 그러자 대우 선사께서, "나 와 관계없으니 함께를 찾아가라" 하시었다.

입재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함께 선사 처소를 와 다녔던 모시고 지켜보니, 선사께서 시자를 불러 "중앙 노동이 문득, 이 진리의 장인의 깊었어 깊으니, 만라나 되는 광명한 말씀이, 마디만한 법사의 몸도 없음이로다.

■ 취임사 (전문)

"대승의 가치 구현에 앞장"

(시대적 소명)

저는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제3대 총무원장 취임사를 하게 되었음을 대중과 함께 기뻐하고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다짐을 깊이 새기며,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주시신 종도와 여러 대중의 지혜에 항상해 주신 내로 큰한 여러분은 물론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총무원장 소임을 수행하면서 조계종단, 한국불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심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 볼 때 종단 역사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자 성과없고는 자부하에 변한 가슴으로 새로운 임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는 부족함과 한계, 뒤기에 부족해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33대 총무원장 임기 1년을 마친 후 2011년 1월 종도에게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불교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오랜 역사와 전통만을 되뇌고 선대 조사들의 공덕에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새로운 한국불교의 가장을 함께 펼쳐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단 내부에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지난 시기 불교를 유지 존립시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기에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 중생의 삶, 시대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한국 불교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었습니다.

지성과 쇄신은 실제 있는 역사

"자성(自省)"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며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자기를 "쇄신(鎖新)"은 다가 올 내일을 미리 준비하여 과감히 변화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성과 쇄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 삼세(三世)를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는 종단의 종무행정을 관장하여 그고 자은 일을 집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역사의 연속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임을 자나 4년 동안의 경험에서 충분히 경험의 인식하였습니다. 지난 4년은 이런 바탕 위에서 자계나 마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 본 결과 이런 어려 가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 그동과 불명을 사람의 결과에 따라는 아주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또한 과정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시간들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의 성과와 한계,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중공사 통해 참종권 확대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장기관이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각 사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교구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교구 전체의 종무행정을 책임 있게 관장하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종도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공사(노동소통)를 확대하고, 원만, 출가 수행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 생활 보장 등 복지제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종무행정은 물론, 전통문화의 보전 창달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사찰 경제와의 연계교류와 소통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조계사는 연결굳고 2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조계사 주변은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 등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조계사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은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불교는 이 땅에서 고대국가 창성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다하면서 외부의 침략과 수탈에서 이 땅의 종생을 지켜내고자 호국불교라는 거룩하고 숭고한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제 조국불교는 자자 역사적 의미를 가반으로 하여 민주국가의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전통문화의 조화로움과 지혜로움을 보전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적 의미로 승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새로운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와 함께 하는 조계사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의미입니다.

총무원은 조계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찰을 가반으로 한 종교재산의 유지관리, 출가수행자와 재가신도의 양성과 교육·포지원 등 종단 유지를 위한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불자들은 종무행정의 이런 역할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단 조계종의 일부 인사들의 일탈과 잘못된 운영과 인권 훈교(訓敎)에 마음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못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돌봄의 기원하고 실천하는 것, 나아 내 이웃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두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모든 출가수행자와 불자들은 한국 불교가 지닌 대승사회의 가치를 함께 구현해야 할 역사적 의무,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3대 총무원 집행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정해진 소임 기간 동안 종도와 함께, 우리 사찰들 위해 조금 도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해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종도와 사부대중,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 냉철한 조언과 경책을 부탁드립니다.

제3대 총무원장 취임사를 맞게 주신 종정예하와 원로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로운 불교발전 행복을 위해 온 국민과 부처님의 지비 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마리 수여 기원합니다.

제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법회가 11월8일 조계사 대웅전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작은 사진은 취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진제종정예하와 원로의장 일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아래 왼쪽)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김혜종 방송지원사장 수석보좌관, 신분증 기반 이벤이들로 구상된 레인보우팔찌를 축가공연. 김창주·신재호 기자